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퍼스 코리아, 필리핀에 마스크 55만장 지원

사마리안퍼스 코리아, 한국마스크산업협회와 협력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는 필리핀 취약계층과 의료진을 위해 마스크 지원

2021-05-24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퍼스 코리아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이는 필리핀에 코로나-19 대응사업의 일환으로 마스크 55만장을 긴급 지원했다. 최근 필리핀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7천명대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인도발 코로나-19 전파가 동남아시아를 위협하는 가운데 필리핀은 자국민을 포함하여 인도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를 차단한 상황이다.

사마리안퍼스 필리핀 지부에 따르면 많은 취약계층 주민들이 강력한 사회활동 제재와 락다운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졌으며 특히 일용직 노동자들은 안정적인 수입원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또한,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식량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다. 필리핀 지부 디렉터 패트릭 지통가(Patrick Gitonga)는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들의 생명을 보호할뿐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도 개인방역용품 지원이 시급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사마리안퍼스 코리아 크리스 위크스 대표는 “백신 공급이 시작되었다고 전 세계 코로나-19 팬

데믹이 끝난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가 예방에 힘쓰지 않으면 언제든지 코로나-19 확산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한국의 우수한 보건의로 제품을 현장에 지원하는데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필리핀에 지원되는 이번 마스크는 덥고 습한 동남아시아에서 활용성이 높은 고급 덴탈 마스크로 한국마스크산업협회(회장: 석호길)의 협력을 통해 공급을 받았다. 사마리안퍼스 코리아는 기관의 첫 번째 국제구호사업인 필리핀 마스크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베트남, 베네수엘라 등 감염병 대응에 취약한 국가에 마스크를 포함해 다양한 개인보호장비(PPE)를 지원하는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사마리안퍼스 코리아는 미국 사마리안퍼스(Samaritan's Purse)의 한국 지사이며 본사 대표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1973년 한국 기독교 부흥을 일으켰던 빌리 그레함 목사의 아들이다. 사마리안퍼스는 지난 50년간 전세계 긴급구호활동, 보건의료활동 및 성인과 어린이 대상 선교활동 등 다양한 초교파적 비영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100개 비영리 단체 중 19위 규모의 단체로 인정된 바 있다. 또한, 매년 전세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며 현재까지 한국을 포함해 캐나다, 영국, 호주 및 독일에 지사를 설립하였고 17개국에 현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마리안퍼스 코리아는 전세계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하여 국제재난대응 및 보건의료활동과 어린이 심장 수술 지원, 어린이 전도사역인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사마리안퍼스 코리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기관 홈페이지(www.samaritanspurs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마리안퍼스 코리아 소개

사마리안퍼스는 기독교 구호 단체로, 성경 속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같이 전 세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물질적 도움을 전하고 있다. 지난 사마리안퍼스는 지난 50년간 전 세계 긴급구호활동, 의료선교 및 어린이 대상 선교활동 등 다양한 비영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마리안퍼스 코리아는 미국 사마리안퍼스(Samaritan's Purse)의 한국 지부이며 본부 대표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1973년 한국 기독교 부흥을 일으켰던 빌리 그레함 목사의 아들이다. 사마리안퍼스 코리아는 한국에서 국제 긴급 구호 활동, 의료 선교 및 어린이 심장 수술 지원과 해외 미전도 지역 어린이 사역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언론 보도 관련 문의

기부사역팀(02-2105-1864 또는 rachel.ahn@samaritanspurse.or.kr)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